

하지만, 왕상 4:5를 참고하시면 כהן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Azariah son of Nathan — in charge of the prefects; Zabud son of Nathan the priest — companion of the king.

1Kings 4:5 ועזריהו בן־נחמן על־הנְפָטִים וְזָבֻד בן־נחמן כהן רעה המלך:

위의 문장에서 כהן은 המלך과 동격인데요, 한국어말로 번역하자면, "왕의 친한 벗 כהן"이라는 말입니다. 왕상 4:5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선지자는 특정 지파나 누군가에 주어지는 세습직이 아닙니다(세습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 선지자 나단의 아들은 지방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만 된다면요. 그런데 그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כהן은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כהן은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벌써 2000년 전도, 그리고 1000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칠입인역 성경 LXX와 기원후 2세기에 쓰여진 시리아역본 페쉬타, 11세기의 유대인 성서 주석가 라쉬, 15세기의 탈군 사무엘에서는 כהן이라는 단어를 "제사장"으로 혼동하지 말라고, "신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3. '맹세 하지 말라'는 것이 잠언에 적혀 있던것 같은데(솔로몬 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난다 긴다 하는 성경인물(예언자, 제사장 들 등) 들도 맹세들인지 궁금합니다! (왕상 18:15, 22:14) (왕하 3:14)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한 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굳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식의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내 말을 상대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명예나, 부모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나를 옹호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도 생긴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말 음누오 ὀμνύω는 "거룩한 것을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붙잡고 자기의 약속, 자기의 결백, 자기의 말이 옳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과 절기들,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성막(성전)이며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거룩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맹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4.역대하를 읽다가 '내가 통수권자 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 목상이었는데 이 생각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사에서 보통의 **선한 왕들로는 만족스럽게 기록하지 않으신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왕이었어도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산당을 철저히 없애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의 통수권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정도'를 원하실까? '정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 생각은 이미 글러먹은 것일까? **만약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든 우상을 없애고 교회만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크리스찬 대통령에게 그것을 원하실까?** 다시 없다는 솔로몬의 지혜로 큰 반발 없이 그것을 이루게 하실까? 하지만 남북 이스라엘 시대라고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다.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였지만 과연 그 땅에 뿌리 깊이 박힌 이교문화를 단번에 쓸어버리는 것이 쉬운일이었을까? 그 우상들은 매력적이었고, 이미 그들에게 '신앙'이었다. 그렇담, 그들이 용감했듯 **현 시대의 크리스찬 통수권자도 '그렇게' 용감해야 할까? 그것은 무식하게 용감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목상하고 역대하를 더 읽다보니 여호사밧(유다 왕)은 신당을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이 사는 곳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며 재판관들, 예배관련자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대하 19:4-11) 아무튼 **절대군주제 일때도 왕이 이렇게 몸소 노력해야 했던 일인데 과연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통수권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통수권자' 일지 궁금했습니다.**

유다이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그리고 그 이전의 통일왕국이던 간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왕이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왕인데 어떻게 음란한 더러운 종교와 합법적이지 않은 산상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종교법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사회법인 사회가 성서의 이스라엘 사회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와는 다른 사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서학자나 목회자가 설명해야할 몫은 아닌 것같아요.** 대통령이 "이명박"인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 것은 별개가 아닐까요? 혹시 형제님께서 우리 나라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교일치 국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의 질문이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기독교인에게 편파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인 답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하는가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제게 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님의 한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절대로 "절대군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국들은 "절대군주제"였습니다. 절대군주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 권위를 위탁받은 종"일 뿐입니다. 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했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